

# 정읍 농촌 발전 정책사업 발굴 가속

### 2024년 농림 축산식품 68개 사업 국비 1417억원 신청 농업정책 분야 582억·축산 390억 등 전년보다 9% 증가

정읍시가 지역 농촌 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2024년 농림 축산식품 사업으로 총 68개 사업에 국가예산 총 1417억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농림 축산식품 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과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내년도 정읍시 예산 신청액은 1417억원으로 지난해 신청액인 1298억원보다 약 9% 증가한 규모다. 분야별로는 정책 분야 18개 사업 582억, 축산 분야 16개 사업 390억, 임업·유통 분야 17개 사업 345억, 식량·원에 분야 17개 사업 100억으로 총 68개 사업이다.

앞서 시는 신청 공고를 통해 읍·면·동과 농어촌공사 등 농업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

았다. 시는 이학수 시장과 농업 분야 기관단체장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농림 축산식품 사업에 산 신청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사업은 전라북도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정읍시 농업 예산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주요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농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상반기 상수도요금 동결

### 군민 가계부담 완화...하반기 인상 검토

고창군이 상수도 생산원가 상승 등 요금 인상요인이 많음에도 군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역시 '상수도요금'을 동결한다.

부안댐에서 광역 상수도 전량을 공급받고 있는 고창군은 지난 2017년 12.5%의 상수도요금 인상 후 줄곧 요금을 동결해 왔다.

다만 지속되는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하반기부터는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의 수돗물 생산비용은 11당 2030원이지만 공급가격은 652원이 그치고 있어 생산비용에 맞춘 요금 인상요율은 211.2%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즉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요금보다 3배 가량 인상해야 하는 수치다.

고창군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도 32.1%로 도내 평균 72.9%, 전국 평균 73.6%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담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고창군의회에서도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왔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상수도요금 동결 조치가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상수도요금은 세금이 아닌 사용료이므로 수돗물 절약에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용궁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산수유꽃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 산수유꽃 만발한 용궁마을로 오세요

### 남원시, 내일 지리산 산수유꽃축제

'제12회 지리산 용궁마을 산수유꽃축제'가 오는 25일 남원시 주천면 용궁마을에서 펼쳐진다.

지리산 영재봉 기슭에 자리한 용궁마을 돌담길을 걸으며 만개한 산수유꽃을 즐기는 행사다.

용궁마을은 수령 50~100년인 산수유나무 수백 그루에서 피어난 노란 산수유꽃과 돌담길, 시골 논밭이 어우러지며 한 폭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산수유 동요제, 노래자랑, 축하공연, 산수유 막걸

리 시음, 네일아트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용궁이라는 마을 이름은 산수유꽃이 피는 봄이면 바닷속의 용궁처럼 아름답다고 해 붙여졌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 '음식점 시설 개선' 업소당 700만원

### 일반·휴게 음식점, 제과점 대상 20~24일 신청

정읍시가 지역 내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적이고 쾌적한 외식환경 구축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입식 식당을 확충하고, 경기 불황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에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여 정읍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시는 올해 사업비 1억4000만원을 들여 음식점 내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주방과 홀, 화장실 등의 시설개선과 입식형 식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업소당 최대 700만원(자부담 별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식형 식탁으로 개선한 한 식당 내부. <정읍시 제공>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정읍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또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정읍시지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위생업

소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읍시보건소 관계자는 "음식점 시설개선지원 사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며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적인 업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연극 통한 학폭 인식 개선·인성 교육

### 전북교육청, 연극 단체 10곳과 업무협약...역할극 등 진행

전북교육청이 지역 연극 단체 10곳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힘을 모은다.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예방 연극 및 역할극 운영 협약식'에는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대표 이미진)' 등 도내 10개 극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모두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단체들이다.

협약을 계기로 연극 단체들은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공연과 역할극 등을

통해 인성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교와 학급에서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 대규모로 시도하는 종합 예술을 통한 학생과 소통하는 연극,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할극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고 학생들의 학교폭력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남원시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민들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카드수수료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해 경영안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타 시군의 지원이 최대 30만원인 것에 비하면 남원시의 지원규모는 상당히 큰 편이다.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됐으며 영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생명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